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7
vol. 39

Wint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7년 겨울호

시론

- 3 미래약사는 전문약사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출발점이다!
이광섭(24회) 부회장

동문회소식

- 5 화보
- 8 멘토링 2016

모교의 날

- 11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46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 14 제46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동아리소식

- 15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정의차(30회) 약품물리화학반 회장

동기회소식

- 18 정겨웠던 10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및 석모도 기념여행
이홍수(10회) 동기회장
- 22 20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문주기(20회) 동기회장
- 25 그리움으로 달려온 30년 김광식(30회) 동기회장
- 29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정병찬(40회) 준비위원장

동문이야기

- 32 인류의 건강 수명 연장을 선도하는 바이오 혁신기업, 노바렉스
권석형(23회) 노바렉스 대표이사
- 34 추모의 글
일전 김일혁 교수님을 고이 떠나보내며...
김창중(11회) 명예교수

36 회비내역

38 만평

39 발전기금

40 장학기금

41 편집후기

미래약사는 전문약사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출발점이다!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덕담을 나눠도 좋을 시간이지만,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간에는 4차 혁명시대에 약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한 직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약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보다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의의 경우 1960년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이 실시되었고, 2001년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이 시행되었으며, 치과전문의는 1962년 치과의사회 차원으로 시험을 실시하다가 2003년에 정식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1999년에 제도화 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의료기관들에서 자체 필요인력 양성과 이를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간호사 또한 1991년부터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 2003~2005년 사이에 법적 절차 등이 진행되어 2006년부터 전문간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한국병원약사회에서도 전문약사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전문약사제도 TF'가 신설되었습니다. '전문약사제도 TF'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화, 해외 전문약사제도 등 관련자료 조사와 회의를 통하여 한국 전문약사제도의 방향과 기본틀을 잡아나갔습니다. 그 후 2008년 6월에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이 신설되었고, 전문약사제도를 관장할 인증위원회 구성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맞추어 기존 교육과정을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약학대학의 학제가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약사 양성을 위해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 되었고, 6년제 약사가 사회에 발디딘지 2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팀 의료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 전문약사에 대한 필요성으로 한국



이 광 섭(24회)
부회장
(전 한국병원약사회장)

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제도가 만들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전문약사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IBM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은 암 진단을 돕고 치료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41초마다 하나씩 출간되는 의학 논문의 흐름을 모두 체크한다고 합니다. 의사 한 명이 새로 출간된 의학서적 가운데 2%만 읽으려면 매일 21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도 하지요.

왓슨은 또한 기업 전략 문서를 탐색하고, 회의에서 나눈 대화를 듣고 요약하며, 경영자의 질문을 받으면 자체 통찰에 기초를 두고 분석해 조언하는 등 '사람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혁명으로 '학벌·스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연언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 입사지원서와 이력서, SNS 글 등을 분석해 사원을 채용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신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콜센터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상당수의 단순직종은 아예 사라지고, 의료·교육·법률·언론 등 전통적인 전문직군도 경계가 흐려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업무 능력의 1순위 조건'은 전문 지식 뿐 아니라 빠르게 배워 적응하는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인재상은 변화의 원천 기술을 이해하고 인문사회지식과 결합해 활용할 줄 아는 '융합적 경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혁신이 강조됩니다. 대학생들은 한 분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융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인적 투자와 사회적 책임이란 관점에서 직장인들의 재교육도 제도화돼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중에서).

“인간을 도외시킨 과학의 발전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이 결합된 과학의 산물은 기계일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감성을 가지도록 인문학, 철학, 사회학의 융합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 미래약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약사들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미래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모교에서 제일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가 만들어지길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 01
- 02
- 03
- 04

- 01 9월 4일_ 나사모 모임
- 02 9월 4일_ 회장단회의
- 03 9월 30일_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04 9월 30일_ 2016멘토링 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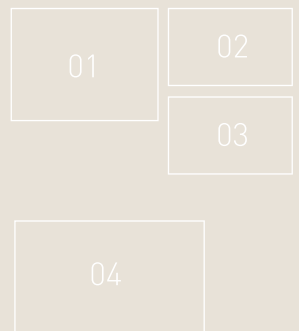
- 01
- 02
- 03
- 04
- 05



- 01 10월 21일_ 중앙대 총동창회 중앙인의 밤
(조찬희 대한약사회장 '자랑스러운 중앙인' 수상)
- 02 12월 1일_ 여동문회 송년모임
- 03 12월 3일_ 수원분회 모임
- 04 12월 4일_ 부산지부 모임
- 05 12월 7일_ 부천분회 모임



- 01 12월 14일_ 신년교례회의
- 02 12월 14일_ 천안분회 모임
- 03 12월 15일_ 은평분회 모임
- 04 12월 19일_ 교수송년회





“우리가 하나 되는 한 걸음!” 멘토링 2016

동문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값진 성과



멘토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자긍심 고취하고 리더십 역량 강화



멘티

선배들의 실질적인 조언으로
취업 만족도 고양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동문회와 힘을 합쳐 선후배간 유대감 형성을 통한 동문간 결속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 성황리에 종료되어 지난 2016년 12월 22일 R&D센터 102관에서 한 해의 사업을 정리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료증이 교부되었고, 특히 베스트커플상으로 멘토 신은경(52회)-멘티 이정규 학생이 선정되었으며, 우수활동상은 제약회사 분야 박태광, 병원약국 분야 우건희, 지역약국 분야 김건민, 연구기관 김도현, 그리고 보건행정 분야 염민혁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선배(멘토)와 재학생(멘티)을 상담과 조언으로 연결시켜주는 멘토링 사업은 2015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과정을 간략히 살펴 보면 지난 2016년 9월 30일 약대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한 걸음! 멘토링 2016' 발대식을 가졌다. 멘토링 사업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멘토링 특강, 그룹 소모임, 성과보고회 등을 거쳐 12월 하순까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한상범 학장은 "선후배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해 동문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멘토는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멘티는 선배들의 실질적인 조언으로 취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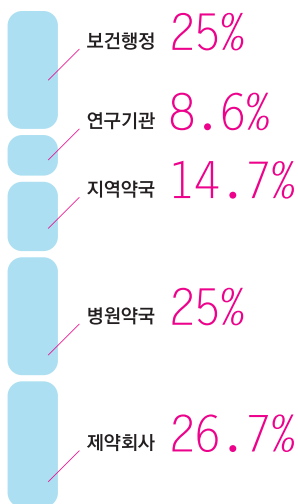
또한 김현태 동문회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멘토링 사업이 한상범 학장과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성장했다. 작년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하며 자기발전 노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약대 발전에 진일보 하기 바란다. 학장과 여러 교수, 참여 동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멘토링 사업은 제약회사, 병원약국, 지역약국, 연구기관, 보건행정기관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배정되었고, 멘토는 각 분야별로 4~6명이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는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멘토들의 부득이한 사정을 대비해 복수 멘토로 운영하기로 하고, 제약회사 6명, 병원약국 6명, 지역약국 5명, 연구기관 4명, 보건행정기관 6명으로 모두 27명이 멘토로 참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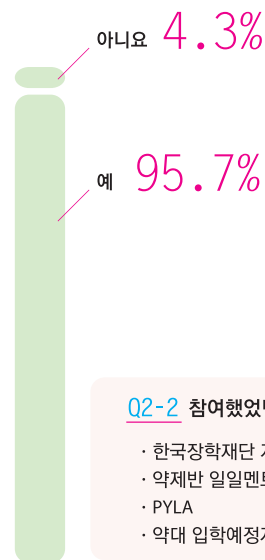
제약회사 분야는 최영욱 교수가 책임을 맡아 일동제약 김종효(21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28회), 삼진제약 김정일(30회), JW중외제약 이경준(32회), 건일제약 최재희(33회), 대웅제약 장현순(53회) 동문이 참여했으며, 병원약국 분야는 황광우

재학생 대상 사전 인식조사

Q1 향후 진로 선택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설명듣기를 희망하는 멘토링 분야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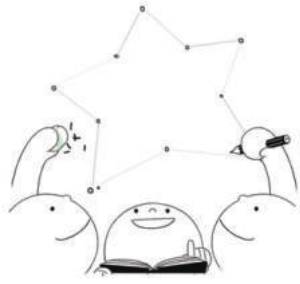


Q2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 경험이 있습니까?



Q2-2 참여했었던 멘토링 프로그램은?

- 한국장학재단 지식멘토링
- 약제반 일일멘토링
- PYLA
- 약대 입학예정자 관련 멘토링



멘토링 사업은 2015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있게 보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6년에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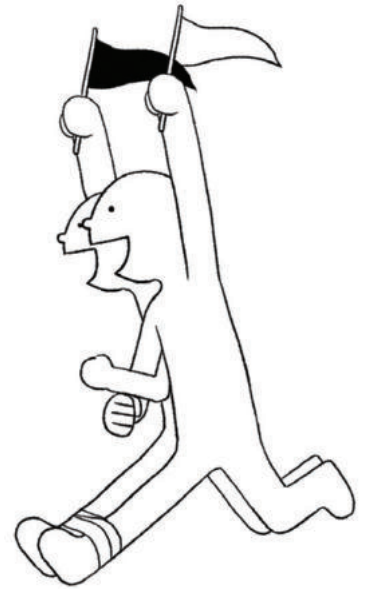
교수의 지도 아래 중앙대병원 약제부 임형미(32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제부의 윤정인(32회), 김수현(39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의 박유경(47회), 권지은(50회), 김경덕(53회) 동문이 발벗고 나섰다.

또한 지역약국 분야는 김하형 교수의 지도로 조암약국 김정호(27회), 동대문약국 이해룡(28회), 천사약국 이승희(46회), 신중앙약국 김보견(51회), 박병태(51회) 동문이 앞장 섰고, 연구기관 분야는 오경수 교수를 중심으로 중앙대 의대 생화학교실 김동석(35회), 중앙대 의대 약리학실 정지훈(37회), 단국대 의대 의예과 김학림(37회), 한국화학연구원 안선주(46회) 동문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보건행정기관 분야는 이지윤 교수의 책임 하에 식약처 대전지방청장 김광호(25회), 로펌 김앤장 전문위원 김인범(29회),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성진(33회),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송호선(51회), 식약처 임상제도과 신은경(5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공기라(54회) 동문이 힘을 보태주었다. 멘티는 2017년 실습을 앞둔 5학년 재학생 120명이며 전공과 성비를 균등하게 고려해 그룹을 구성했다.

한편 본 멘토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2016년 3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만족도가 높고 성공적인 멘토링이 되기 위해 5학년 재학생들(멘티)을 대상으로 사전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호하는 전문 분야별 멘토와 멘티를 매칭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조사에서 진로선택을 위한 멘토링 분야의 경우 제약회사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병원약국·보건행정 25%, 지역약국 14.7%, 연구기관 8.6% 순이었다. 또한 이미 95.7%가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경험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46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더위도 추위도 없는 초가을날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들이 모여
하 . 루 . 를 . 즐 . 겠 . 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2016년 10월 16일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제 46회 모교의날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회는 다양한 게임과 행사로 동문들을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했다.



김현태(20회) 회장은 “동문회 행사에 지원해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20대로 넘어가는 집행부로 2 배 이상 일을 하겠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모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교 발전기금에 큰 금액을 기부한 약대 동문들에게도 감사한다”면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멘토링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저를 적극 지지해준 동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다른 일들을 미루고 제일 먼저 왔다. 오늘 운동이나 골프 치기 가장 좋은 날씨다. 약국 스트레스를 날리고 골치 아픈 일은 저에게 맡겨달라”고 인사했다.



한상범 학장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연구기금으로 연구기금 6억원을 기부해 최첨단 핵자기공명장치가 설치되고 있어 10월 중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 총원도 교무처와 협의가 잘 돼 내년에 5~6명의 신규 교수가 총원될 예정이며 멘토링 사업이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학교 근황을 소개했다.



1



2



3



4

1. 바둑대회 2. 족구대회 3. 스펀지주사위게임 4. 옷놀이
5. 미니골프대회 6. 제기차기대회 7. 투호놀이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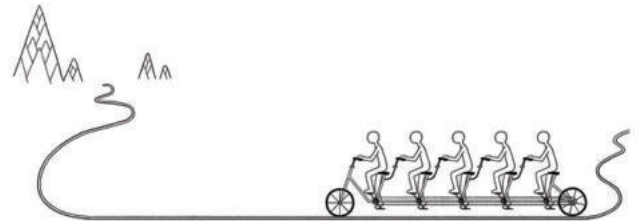
7





종목별 수상

- 족구 : 안산(1위), 36회(2위), 38회(3위)
- 테니스 : 34회(1위), 7조(2위), 약품물리반(3위)
- 바둑 : 강응모(1위), 이현희(2위), 김구(3위)
- 제기차기 : 김인성(1위), 김영재(2위), 민병희(3위)
- 윷놀이 : 푸름회(1위), 19회(2위), 안산(3위)
- 생맥주빨리먹기 : 38회(1위), 34회(2위), 푸름회(3위)



이날 20회들이 제정한 '자랑스런 동문상'에 호스피스사업을 벌여온 원주희(19회) 동문이 선정돼 시상되기도 했다. 20회는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모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체육대회는 족구, 테니스, 바둑,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미니골프, 스피지주사위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되었으며, 비가 내리는 중에도 많은 동기회, 분회, 실험반들이 참석하였다.

항상 더 나은 체육대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남

녀노소, 가족들까지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 상품까지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다.

곳은 날씨에도 나이와 성별을 떠나 쟁쟁한 승부가 펼쳐졌다. 특히 투호놀이, 스피지주사위 던지기, 미니골프 게임에서는 체육대회에 참석한 전 회원들이 함께 관전하면서 치열한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올해 종합 우승은 38회 동기회가 차지했으며, 2위 34회 동기회, 3위 36회 동기회가 선정되었다. 최다참가상은 42명이 참석한 안산분회로 결정되었다.

제46회 모교의 날 골프대회



메달리스트 함삼균(24회)
우승 정재일(7회)
2위 강응모(18회)
3위 박수길(27회)

서코스 롱 임준석(23회)
동코스 롱 김광식(30회)
서코스 니어 송용만(16회)
동코스 니어 최광훈(22회)
행운상 민경훈(39회)
특별상 김은진(29회)
 오경택(38회)

분회 1등 안양분회
2등 안산분회
3등 고양분회
동기회 1등 16회동기회
2등 24회동기회
3등 28회동기회

정 의 차 (30회)
회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약품물리화학반(무기제약반)



약품물리화학반(무기제약반)은 1957년 창설된 이래 60년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약품물리화학반 동문회와 하나가 되어 열정적인 활동을 해온 모임입니다.

약품물리화학교실은 현재 학부생이 학년 당 11명씩 총 44명이 재학 중이며, 75학번부터 현재까지의 졸업생 모임인 무기제약반 동문회는 학기 초 신입생 환영회를 필두로 봄의 향기를 맡으며 딸기파티, 동문회 주최의 여름여행,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여름방학 실험,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교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약학심포지엄에 이어 약사고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졸업생 환송회 등의 행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봄 체육대회에는 우리 약대 최초로 칼라무스 합창동아리와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약품물리화학교실이 자부심과 함께 명실 공히 약학대학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김하형(31회) 교수님의 약품물리화학전공 대학원 약학석사, 박사학위 취득자 모임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대 6년제 도입 이후 대학원 진학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박사과정 지원자가 꾸준히 늘어 타 실험실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김하형 교수님과 오경택(38회) 교수님의 높은 학문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품물리화학교실은 재학생들의 성실한 실험반 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졸업동문들도 약국 및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공직약사, 대학교수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57년 장판섭 교수님이 무기반을 창설하신 것이 우리 교실의 모태로, 이후 1969년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임하신 이광표(1회) 교수님이 1976년 무기제약반으로 개칭하고, 1994년 지금의 약품물리화학교실로 다시 개칭하며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김하형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동경대학 약학부에서 약학 석사와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옥스퍼드대학 글라이코바이올로지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1996년 3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담당과목은 학부에서는 약품물리화학(2011년 물리약학으로 개칭), 무기제약 및 물리약학실습, 무기방사성의약품 등이며, 대학원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특론, 글라이코믹스 및 탄수화물의약품, 제약산업과 물리약학, 물리약학 세미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강의평가 실시 이후 매년 중앙대학교 강의평가 우수 전임교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중앙대학교 연구 우수교수로 배용수 연구기금 수상,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의약품분야 최우수상, 2015년도 중앙대학교 개교97주년 교육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바이오약품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미래창조과학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2006년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8년 조교수로 부임한 오경택 교수님은 약물동력학, 무기제약 및 물리약학실습, 약사법규, 무기방사성의약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생체 내 약동학적 성질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약물 전달체의 개발을 주 연구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해 기존 약물의 효능을 극대화 시키고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미래창조부 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사업, 미래창조부 연구재단 기초과학사업단 (SRC), 식약처 안전기술선진화사업 '안전하고 유효한 나노기술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연구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물리화학교실은 이러한 첨단 연구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졸업하신 여러 동문들을 통해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로서의 역할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문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은 김하형 교수님의 권유로 장원규(28회) 전임 동문회장님이 대학본부 대외협력처와 협의하여 참여하는 동문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장학금 기부 약정서를 통해 소액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2009년 2월 7일 첫 모임을 갖고 17명의 졸업동문들이 36개월 약정서에 서명하여 936만원을 모았고, 이어 모든 학번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약 84명의 실험실 동문들이 총 3,784만원의 약정서에 서명하여 정기적인 장학금 수여를 하기로 하고 현재 매년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시작한 장학금 기부방법은 '물방울 장학금'이라 불리며 합창반 등 다른 동문들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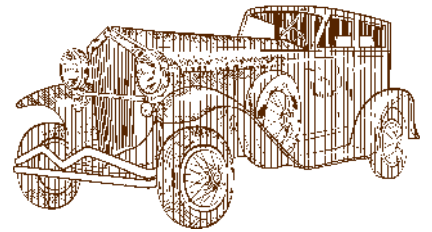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약품물리화학교실의 모든 동문들은 이광표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니체의 경구를 늘 가슴에 되새기며 재학생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선후배의 돈독한 사랑과 존경이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홍 수 (10회)
동기회장



정겨웠던 10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및 석모도 기념여행

10회 동기회



만만치 않은 세월의 흐름 앞에 무어 그리 좋은 일만 있겠나만은, 그래도 모처럼 모두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두터운 정을 쌓아왔던 동기들이 ‘약대 10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잘 마치고 뿌듯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9일 11시 중앙대학 약학대학 102관 11층 유니버시티클럽 회의실에서 10회(1962년 입학, 1966년 졸업) 동기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조촐한 기념행사를 진행했고, 행사 후 모두 다같이 1박 2일 석모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4년 전에 공부하던 교실 앞에 세워진 커다란 현대식 건물 약대 102관 11층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감회가 적지 않은데,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한 배움터에서 4년을 같이하면서 서로를 느끼고 졸업 후 50년을 사랑하고 있는 한 몸 같은 더 없는 인연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10회 동창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동기들은 1962년 국가고시 1회, 90명이라는 역대 최소 입학생 모집의 어려운 관문을 넘어선 합격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찬 나래를 펼쳐가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티없이 맑고 배움의 열정에 찻던 얼굴들이 어느새 중년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사회의 각계 각층에 버팀목이 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랑스런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써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에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교훈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행사를 뜻있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동기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이번 50주년 행사를
뜻있게 하려는 동기 여러분들의
열정과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고,
모교에 장학기금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협조하신
동기들에게 재삼재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준 덕분에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도 마련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설정한 행사의 목적은 졸업 5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10회 동기들 간에 더욱 밀접하고 친목한 화합을 오래 오래 지속하고 뜨거운 우의를 다진다는 것이었으며, 그를 바탕으로 향후 동기회의 바람직한 진행방향을 논의한 바 해외 거주 동기들과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에게 더욱 밀접한 소통을 하고 모임에 동참하도록 하여 앞으로 동창회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하고, 행사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동기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하여 모든 동기들이 부담없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로 정해 일관되게 밀고 나갔습니다.

행사 당일 유니버시티클럽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등록을 마친 동기들은 새삼 앞가슴에 명찰을 부착하면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설레임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광일 동기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먼저간 동기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참석하신 내빈들 소개가 있었는데 양형호 학장님에 대한 추억과 함께 한 덕용교수님, 김일혁 교수님, 손동헌 교수님, 이광표 교수님, 허인회 교수님께서 우정 참석해 주셔서 반가움과 고마움이 더했습니다. 김현태 약학대학 총동문회장과 한상범 모교학장이 참여하여 축하까지 해주어서 더욱 든든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 변도문, 박호일, 유정사, 김광일, 김영호, 이흥수 동기에게 동문회로부터 감사장 수여가 있었으며, 10회 동기획장을 맡고 있는 제가 환영사를 낭독하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오백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음은 모교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전임 동기회장단의 기념케익 커팅, 박호일 동기의 건배 제의에 이어 정성으로 마련한 강화 6년근 인삼을 은사님들에게 증정하고, 오늘 참석한 모든 동기들에게 기념품으로 기념 타월, 장인 목걸이, 강화 6년근 인삼을 나누며 새삼 우의를 다지는 기쁨을 골고루 나누기도 했습니다.

1부 행사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의미를 더욱 되살릴 수 있는 모교 순방의 기회를 한상범 학장의 안내로 가진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을 한 후 전광석 동기의 진두지휘로 강화 석모도로 1박2일 기념여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준비위원 이흥수, 박호일, 김광일, 전광석).

오후 2시 전세버스로 출발한 우리는 석모도 보문사 관광을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치고 숙소인 아일랜드 펜션에 입실하여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저녁 6시에 행사의 불꽃인 가든파티에서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으며, 분위기를 주체하지 못한 동기들이 노래방으로 달려갔음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열과 건강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10일 아침 9시 석모도를 출발한 일행은 강화도 고인돌 광장을 둘러보고 용궁 온천에 들러 짧은 기간의 누적된 피로를 털어내고는 가볍게 점심을 마치고 오후 3시경 흑석동 모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기금을 협찬해준 동기들(김광일, 김영호, 김정남, 김명민, 박영실,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서정목, 심수일, 안영태, 우영창, 유정사, 윤효문, 이광수 이대윤, 이양원, 이영민, 이원일, 이장열, 이종석, 이택승, 이홍수, 전광석, 전수원, 정승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조문준, 주정덕, 하광호)께 감사드립니다. 협찬기금 총액이 15,750,000원에 달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고, 석모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지요.

당연히 행사 당일 열일 제쳐놓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해준 동기들(김광일, 김명민,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심수일, 김정남, 김영호, 안영태, 유정사, 윤효문, 이광수, 이대윤, 이양원, 이영민, 이원일, 이장열, 이종석, 이택승, 전광석, 전수원, 정승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조문준, 주정덕, 이홍수, 하광호, 박영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불러보며 마음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기회가 지난 50년동안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변도문, 박호일, 유정사, 김광일, 김영호 전임 회장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50주년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준 전광석 동기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50주년 행사를 뜻있게 하려는 동기 여러분들의 열정과 많은 협조가 있어서 이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고, 모교에 장학기금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협조하신 동기들에게 재삼재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더욱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만남의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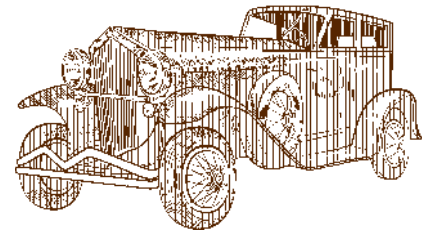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라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0회 졸업생이라는 떳떳한 자부심을 갖고 사회와 국가에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50주년 기념행사가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 소중히 감사 안고 유익한 끝맺음이 되길 기원하고, 30년후 2046년 80회 기념회를 할 때까지 동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우리 동기들은
1962년 국가고시 1회, 90명이라는
역대 최소 입학생 모집의 어려운 관문을
넘어선 합격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찬 나라를 펼쳐가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

문 주 기 (20회)
동기회장



20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자랑스런 동문상’ 제정의 기쁨 20회 동기회



“
이번 행사가
우리 20회 동기들의
화합의 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리란 것을 확신하며....

“중약 20회 동기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 옛날 학창시절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기들의 과대표를 했다는 전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20회 동기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회장을 맡는 순간 동기회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란 20회 동기들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토록 하여 동기들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2년 동안 줄곧 그런 생각으로 동기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첫해엔 마음 같지 않아서 과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후배 동문들이 20회 동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동기회보다 걸출한 인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회 동기회를 더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첫해 1년 동안 초석을 잘 다진 탓인지 2년째인 2016년에는 물심양면으로 동기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졸업 40주년 행사에 필요한건 동기들의 참여 못지않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는 것이었는데, 몇몇 뜻있는 동기들이 기본회비 외에도 특별회비를 흔쾌히 납부해주는 열성을 보여주어 무난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기회장으로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회비납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졸업 40주년 행사 진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행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모임에서 이왕이면 좀 색다르고 뜻있는 행사를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수차례 논의 끝에 ‘자랑스런 동문상’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졸업 40주년 행사 진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히 행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그 모임에서 이왕이면 좀 색다르고 뜻있는 행사를 한 번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수차례 논의 끝에 ‘자랑스런 동문상’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중앙대 약대 김현태 동문회장님이 각 기수별 동기회장으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훌륭한 동문님들 중에서 행사 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약사로서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원주회 동기(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를 만장일치로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동기회를 대표한 몇몇이 우정 용인시 백암면에 위치한 선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예배시간에 상패와 부상(금 1냥, 행운의 열쇠)을 직접 전달하여 기쁨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밖에 모교에는 ‘모교의 날’ 행사 당일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재단에 1,000만원의 장학증서를 김현태 동문회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1월 12일 1박2일로 원주에 소재한 오크밸리 콘도에서 거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남녀동기들이 학창시절의 반가운 얼굴들을 보기 위해 운집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속초에 거주하는 이철남 동기는 12일(토) 당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을 위해 속초에서 서울로 와서는 집회가 끝난 밤 10시경에 다시 서울서 콜택시로 원주에 밤 12시경 도착하여 모임에 합류하는 적극성을 보여 그 자리에 모인 동기들의 크나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반면 멀리 동해시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최인걸 동기가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숙소주변까지 왔다 길을 잃고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그냥 되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여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동기들을 위



해 맛있는 떡을 보내주신 박영기 동기에게도 감사드리며, 동기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히 원주 행사를 위해 콘도 예약 및 1박2일 행사 스케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주신 원주에 거주하는 우영각, 한광식 동기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3일 오전 일정인 Museum SAN 관람이었으며, 20대의 학창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는 그날의 동기들의 얼굴 표정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동기님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동 기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20회 동기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 주신 이신규 동기의 갑작스런 타계로 같이 자리를 못한 점이 아직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저 멀리 하늘 나라에서도 졸업 4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침을 같이 기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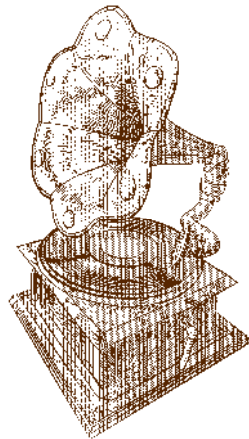
이번 행사가 우리 20회 동기들의 화합의 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리란 것을 확신하며....

“중약 20회 동기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움으로 달려온 30년

30회 동기회



어디론가 훌쩍, 그렇게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눈 내리고, 꽃이 피고, 뜨거운 바람을 부채질하며 나뭇잎 떨어지는 거리를 바쁘게 오갑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30년!

다들 어떻게 살아 왔을까요? 궁금합니다. 가끔씩 오가며 만났던 사연들이 줄래줄래 엮여있지만 사람은 역시 만나야 진정한 친구이지요. 먼 젊은 시절의 만남들이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져 갑니다. 참 소중한 인연들이지요. 혹여나 그 시절에 친구 간에 생긴 응어리가 있어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다면 만나서 해원(解冤) 해야겠지요.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무료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머리 속으로는 변화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속으로 모인 것이 인생이라지만, 돌아보면 젊은 시절 풋풋한 꿈과 인생관, 그리고 이루어졌든 많이 바뀌었든 사랑도 있었지요.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 그 시절의 우리들처럼 졸업하는 나이가 되었네요. 손자를 본 친구도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죠.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내 중심으로만 산다면 세상은 참 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기를 성찰하며 혼자 살든, 설레발치며 그 친구들마저 재미나게 해주려고 튀는 행동을 하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겠지요. 이미 거의 다 그 지경인데 꾸며서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앙대 약대 최고의 수재가 모인 30회입니다.

그 수재들의 졸업 30회 축하연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청춘의 설레임에 청룡연못 가를
거닐었을 젊은 시절들이 기억나겠지요.
아니 약대생은 공부만 했으므로(?)
도서관 오르는 길에서 관심 있게 보아 둔
벚나무에 꽃피고 단풍들 때,
그 밑 벤치에 앉아 있던
그 누군가가 그리운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전날 26일, 그동안 차근차근 행사를 준비해온 회장단은 마지막 준비사항 확인차 학교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첫눈이 왔습니다. 학교는 수시입학시험 관계로 교통지옥. 그래도 동문회 사무실에 가서 옷 정리하고, 이름 써 놓고, 물건 확인하고, 레크레이션 준비물 챙기고, 식당에 가서 영사기 확인하고, 컴퓨터 사용가능 여부, 무대, 좌석배치, 식사준비 상황, 기념품 배부 위치 선정, 옷 갈아입을 곳, 주차문제, 주차권 확보, 뒷풀이 장소 확인, 만약을 위한 대기장소 섭외 등등등. 그새 하루가 지나가 행사 당일입니다. 그동안 카톡으로 실시간 교통상황, 친구들의 궁금사항에 일일이 답변하며 일찍 와준 박소진(감기몸살에 걸려 약을 먹어가면서도 열정적으로 도와준 친구!), 최병태, 김연하, 정의차, 윤기숙, 윤미숙 총무 등등과 함께 선물포장, 옷 정리, 기타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행사가 진행될 현장에 가서 무대, 음향, 마이크, 동영상 상영시연, 술과 음료 배치, 잔, 식탁배치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내에서는 도착하는 친구 맞이로 바쁘네요. 행사를 하다보면 계획보다 시간이 늘어져서 누군가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데 맡기려던 친구가 바빠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회장

이란 직책이 너무 바쁠 수밖에 없네요. 진행사항 챙기랴, 콘티 챙기랴, 댄스 연습하랴, 레크레이션 준비하랴, 그래도 친구들은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그것으로 만사 OK! 교수님들도 오시고 동영상이 돌아갑니다. 그 동안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최병태 부회장이 한껏 실력 발휘를 했네요. 참고로 사진 몇 장 추가와 음악선정 문제로 총무님과 살짝 심도있는 큰소리가 오갔답니다. 이럴 땐 옆에서 조금 부추기는게 제맛이죠?

우리 82동기회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숙 같은 출중한 친구가 총무를 맡았는데, 골프도 잘 치지요. 그리고보니 82 골프동호회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4조 16명이 라운딩했지요. 언제나 문은 열려있으니 동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행사 시작입니다. 총무님의 개회 선언!

다음은 일사천리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민의례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게 또한 인간미 넘치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가 제창에는 대한약사회 합창단원인 제가 마이크 잡고 남들 몰래 크게 불렀습니다(다들 몰랐지요?).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죠. 내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내 중심으로만 산다면
 세상은 참 편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기를 성찰하며 혼자 살든, 설레발치며 그 친구들과마저 재미나게 해주려고 뛰는 행동을 하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호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겠지요.
 이미 거의 다 그 지경인데 꾸며서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인사말에 이어 격려사와 축사, 고석일 전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 그리고 동문회 장학
 기금 전달 및 건배 제의에서 교가제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
 니다.

31회 후배 대표들도 같이 참석하여 축하해 줍니다(이성표 회장, 오경숙, 김미숙 후배님
 들 내년에 행사 잘 하그래이!)

다음은 식사시간입니다. 다들 뭐가 좋은지 수다 떠느라 밥도 잘 안먹네요, 교수님들 모
 시고 가서 식사하라고 해도 모셔 가지도 않고. 식사가 무르익자 공연 시작입니다. 칼라
 무스의 합창, 오영자의 플룻, 정의차의 클라리넷 연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해 준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꼭 가져야 될 10가지에 악기 하나는 능
 숙하게 익히는게 들어 있다는데, 친구들의 공연은 그 정성이 보여서 좋습니다.

아침 그리고 귀만 즐겁게 하기보다는 역시 축제는 오감 만족 아닐까요. 보는 만족을 위
 해 댄스스포츠 ‘살사’ 공연을 회장, 총무가 몸을 던집니다. 서프라이즈~~~ 너무 멋져
 요. 행사 후 김창중 교수님이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김회장, 멋있는 댄스였어.”

이어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용진이, 진우, 석일이, 병태 등 남자동기 네 명이 나와서

학생 시절 좋아했던 여자동기 업어주기를 시켰더니 엄청 신나하기는 했지만 나이들을 속일 수는 없어 하체 부실로 다들 비틀거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발 들고 오래 버틴 정용진 우승. 노래도 시키고 재미나게 하고 싶은 게임이 지천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준비한 9개 중 반도 못하고 종료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명동치킨에서 뒤풀이합니다. 다들 재미나게 이야기하네요. 정리하고 좀 늦게 갔더니 많이들 가고 30명 정도 남았네요. 그래도 진행하느라 식사도 거의 못했던 차에 이제 맥주 한 잔 마실 기회가 오네요.

이어서 마무리 당구장 갑니다. 인생이란 경쟁이라 여기서도 줄이 세워지네요. 서글픕니다. 그래도 열심히 내기조(동철, 상훈, 일균, 경덕), 유흥조(진우, 석일), 사기조(웅재, 병태, 광식- 셋 다 150이러는데 뒷조사하니 모두 200, 그럴지만 한 게임에 45분이나 걸리니 실제로는 120이 맞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로 나뉘어 옛 추억에 젖어들어 봅니다.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01명이라는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뤄진 것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회장단의 노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바 오영자, 최병태, 김영희, 정의차, 김혜수, 원주현, 김연하 부회장 이하 이장무, 김현학, 백영주, 정문경 부회장들과 이진우 조직국장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특별히 사진을 모아서 멋진 음악과 함께 동영상을 만들어준 최병태, 이러저러한 도움을 준 김영희, 그리고 멀리 캐나다에서 친구 보러 수만리를 날아온 노영석 친구에게 뜨거운 마음 전합니다.

행사의 기획부터 인선, 그리고 연락, 독려, 확인에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하여 최선을 다한 윤미숙 총무님께 감사드리고, 그 재능과 열정, 그리고 정의로움과 꼼꼼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는 10년, 어떤 친구는 졸업 후 30년 만에 처음 본답니다. 지난 세월만큼 크게 변한 약대 건물과 중앙대 영

신관 앞뜰. 그래도 다들 기념사진들은 찍었네요. 아마도 청춘의 설레임에 청룡연못 가를 거닐었을 젊은 시절들이 기억나겠지요. 아니 약대생은 공부만 했으므로(?) 도서관 오르는 길에서 관심 있게 보아 둔 벚나무에 꽃피고 단풍들 때, 그 밑 벤치에 앉아 있던 그 누군가가 그리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행사 후 감상을 써서 보내 준 식약처에 근무하는 최돈웅 친구의 시를 올립니다.

그리움

최돈웅

오며가며 지내다
문득 떠오르면 가슴 먹먹하고
아련 모래알 진주같은 것이었다.

적지사 산자락에
수줍은 들꽃인가 했더니
돌아보니 청룡연못 도서관 오르던 셋길에도
낙엽으로 소복이 쌓여 있다.

삶이
나이 오십 줄 들어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마음이 가고
더러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곤 한다.

떠칠 새
내 안 가득 너의 얼굴 너의 손
주머니 속에 온기로 가득이 남아
한동안 꿈결처럼 살아갈 수 있겠다.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40회 동기회



“ 준비 초기에는 과연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이후 92학번 동기들의 저력.. 오랜만에 어색한 만남..
그러나 곧 학창시절 동기들의 편안고 친근한 모습으로,
정말 잊지 못할 2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2학번(40회) 졸업20주년 기념식’을 2016년 10월 23일 오후1시부터 중앙대 약대 건물 유니버시티클럽에서 가졌습니다.

번개모임과 정기모임을 통해 준비위원 동기들이 모여서 작년에 진행했던 91학번 선배님들의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92학번들의 20주년 기념식 행사는 어떻게 우리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동기들간 소통 채널의 필요성, 그리고 추억을 통해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카카오톡과 밴드를 통해 동기들을 소통의 광장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2학번으로 입학한 후 가졌던 오리엔테이션 및 MT 등의 사진을 모아서 20주년 행사 초대장을 제작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20주년 기념식 행사 준비 초기에는 동기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까 등등의 다양한 걱정들이 많았었지만, 중간중간 1대1 마니또 또는 준비위원들의 1대1 유선통화 등을 통해 더 많은 동기들이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 정성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높은 참석율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념식 날 당일 유니버시티클럽 1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미리 준비된 포토존에서의 촬영을 시작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교수님과 동기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병찬, 황세은 동기의 사회를 통해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여하신 교수님과 내빈들을 소



“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수님들, 내빈들과 동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흑석동 모교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2학번(40회)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의미있게 마무리 함으로써
우리 92학번 동기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개하고 동기회 이사인 이태상 동기의 기념사, 김현태 동문회장님과 한상범 학장님의 축사에 이어 허인회 명예교수님께서서는 직접 무대 앞에 나오셔서 다양한 한시를 보여주시면서 40대 중반인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통해 격려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후 92학번만의 특성을 살려 이전과는 다르게 약학대학 장학기금과 동문회 발전기금 2종의 기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지연 동기가 은사님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하고 손동헌 명예교수님의 건배사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행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부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식사 및 2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창학, 신금주 동기의 노력으로 제작된 학창시절의 모습과 졸업 후 동기들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의 축하 동영상을 감상하며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멀리 타향 미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현 동기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작으로 사는 곳은 멀리 떨어진 외국이지만 마음만은 동기들과 함께하는 다른 동기들의 사연과 함께 특별히 동기 자녀들의 축하 동영상을 보며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축하공연으로는 유혜경 동기가 힘을 써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었던 '유엔젤보이스'라는 팀을 초청하여 멋진 남성 하모니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졸업 20주년 기념식이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동기들이 옛 추억을 반추하고 그에 더해 동기들간의 우정을 재정립할 수 있는 훈훈함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권추첨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준비한 백명기 동기가 진행을 맡았는데, 그리 넉넉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발휘하여 TV, 자전거, 청소기 등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함으로써 정말 웃음과 재미가 넘치는 그야말로 행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짧음을 못내 아쉬워하며 사회자의 폐회사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인 행사진행에 대한 구성을 끝내고 실제로 모임을 준비하는 중간부터 설정된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서 전체를 조율하고 상황을 체크하는 모든단계에서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교수님들, 내빈들과 동기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흑석동 모교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92학번(40회)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의미있게 마무리 함으로써 우리 92학번 동기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준 이병두, 이태상, 백명기 등의 동기들, 은사님과 내빈 초청 및 행사 당일 이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힘써준 이태상, 최용석 동기, 행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중요했던 참여 독려를 위한 연락 및 회비를 걷어 주었던 총무역할을 너무 잘 해준 박조영, 초대장과 기념품 등 다양한 행사 준비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준 박선아, 포토존을 제작하고 동영상과 음향을 총괄해 준 전창학, 신금주, 새로이 약국을 오픈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준비위원으로서 모임에 참석하여 제약학과 연락 및 참여독려에 힘써 준 최성철, 참여하신 은사님들과 동기들의 술과 음료를 준비해 준 이필상, 우리들의 행사장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도록 꽃으로 꾸며준 안자영, 기념식 당일 일찍 행사장에 와서 준비하는 동기들의 아침으로 김밥과 떡등을 준비해 준 최윤식, 마정애 동기 부부, 기념식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멋진 공연을 준비해 준 유혜경, 자녀 축하 동영상을 보내준 동기들과 자녀들, 해외 축하 영상을 보내준 동기들, 행운권 추첨을 위해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고 재미나게 행운권 추첨 시간을 진행해 준 백명기, 항상 준비모임에 참여해서 곁에서 응원해 주고 무엇이든지 맡겨만 달라며 명찰과 방명록을 챙겨준 신진영, 그리고 우리의 2차를 준비해 준 장정수 동기에게 두루두루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정말 먼 곳 제주에서 와준 양준소, 그리고 오직 일요일에만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좋아하는 자전거 라이딩을 포기할 수 없어 멀리 수원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참여해준 이병무 동기, 약대 졸업 후 의사의 길을 택한 뒤에도 함께 자리에 참여해 준 최지향 동기에게도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참여해서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 여러 동기들에게도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김현태 동문회장님, 한상범 학장님, 이해룡 동문회 사무총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졸업20주년 준비위원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기념식을 통해 평소 자주 볼 수 없었던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이 모임을 발전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는 열정으로 일한 정병찬을 위해 옆에서 함께 해 주고 힘을 실어준 여러 동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건강 수명 연장을 선도하는 바이오 혁신기업

노바렉스

고령화 시대에 (주)노바렉스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발생 위험 감소와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의 연장이라는 헬스케어 3.0 시대를 선도하고, 또한 바이오 기술과 타기술이 융합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바이오 경제시대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대표되는 그린 바이오분야에서 인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당사는 2008년 (주)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로 출범했으며, 2009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2012년에는 미국 최대 건강기능식품유통회사인 GNC와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약제학회로부터 생산기술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호주 최대 건강기능식품회사인 BLACKMORES사와 생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명을 (주)노바렉스로 변경하였으며, 오창의 1, 2 공장에 이어 같은 해 오창에 3공장을 증축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기도 했고, 2015년도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과 연구소기업인 (주)노바케이메드를 설립하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연세대학교와도 연구소기업 설립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축으로 B2B(Business to Business)를 하는 기업으로 주로 ODM(자체개발주문생산방식, 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및 OEM(수탁생산방식,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을 하는 기업입니다. ODM, OEM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권석형 (23회)
(주)노바렉스 회장

79년 중앙대학교 약학사
98년 중앙대학교 약학석사
07년 중앙대학교 약학박사

경력
83.10월~86.10월, 종근당제약(주)
86.11월~90.10월, 삼아제약(주) 부장
91.4월~96.6월, (주)한국파마 공장장(상무)
03.4월~06.3월,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
07.2월~08.2월,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 위원
09.5월~현재, (주)노바렉스 회장
16.2월~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수상경력
02.10월, 대통령 표창 (한국벤처기업대상)
06.4월, 기술진보상 (사)한국응용생명학회



제품 및 표창



중국박람회

개별인정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결과 이제까지 34개의 개별인정 원료를 획득하여 업계에서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인정 원료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현재 29개의 개별인정 파이프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갈 것입니다.

개발된 개별인정 원료를 해외에 등록하여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2018년 오송의 20,000평 부지에 해외기준에 맞는 공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트너사인 미국의 GNC와 호주의 BLACKMORES사와 협력하여 제 3국가인 동남아시아에도 이들의 브랜드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공략을 추진 중이며, 또한 단일시장으로 규모가 큰 일본 및 중국도 간과해서는 안될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본사 전경

본인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로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에 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야말로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투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의 유전자검사를 하는 비용이 인당 \$1,000 대에 접어들었고, 바야흐로 빅데이터에 의해 유전자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질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응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질환발생의 지연을 기대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노바렉스가 갖고 있는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특히 동문여러분들께서는 바이오 경제시대의 도래를 도외시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노바렉스가 선도적으로 건강수명 100세 시대를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워크샵

일전^{一田} 김일혁^{金一赫} 교수님을 고이 떠나보내며...



평생 후학양성과 학문연구 및 저술활동을 계속하신 우리나라 약학계의 원로,
일전 김일혁 교수님의 갑작스런 비보에 슬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빕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중반에는 우리 인간수명이 연장되어 이른바 “Centenarian” 즉 100歲人 시대가 열린다고 말하시면서 100세 시대의 主人公이 되자고 역설하시던 선생님께서 85세에 타계하시다니 청천벽력 같은 비보입니다!

일전 선생께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시고 1959년에 미국 Warner-Lambert Research Institute 연구원으로 근무하시었으며, 중앙대학교에서 1956년부터 2006년까지 약대교수, 학장, 총무처장, 재무처장, 부총장을 역임하시면서 누구 보다 더 중앙대학 미래를 걱정하시며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으로로서 대한약학회와 한국생약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약계를 대표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김 박사님은 1986년부터 3년간 약사공론 주관과 타계 직전까지 약업신문 고문으로 재임하시면서 약업계 발전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더욱이 김 교수님은 한풍제약과 삼진제약의 신약과 제품개발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시는 등 제약산업발전에 공헌해 오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평생 저술활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아 ‘약사교수의 사색’ ‘약이 되는 풀과 나무’ ‘100세를 사는 불로의 라이프디자인’ ‘성경에 나오는 약용식물’ 등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을 남기신 학자이셨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나라 약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약사회 약사금탑, 약업신문 동암약의상, 대한약학회 약학교육상, 한국생약학회 한국생약대상, 의학신문사 약사평론가 기장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김창종 (11회)
 명예교수

일전 교수님께서 중앙대학 약대에서 약용식물학을 강의 하신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때인 1963년 3월에 제가 입학할 때 1학년 지도교수를 맡으셨으니 師弟의 인연을 맺은 지 54년만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그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식 영어발음으로 교육하시고 친절한 미남교수로 인기가 높으신 김 교수님의 그 모습이 옛그제같이 생생한데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마음구석에 멍이 든 느낌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후 10년간 조교·강사 浪人生活를 보낼 때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면서 제자에게 맥주를 사주시었던 다정다감하셨던 은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의과대학에서 약학대학에 필요한 기초의학을 4년간 수학하였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대학 약학대학에 병태생리학 교수로 채용해 주시었으니 한국 약학대학에 병태생리학 교육이 도입되고 임상약학교육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 6년제 약학교육이 정착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전 선생님과 저는 54년 동안 약학이라는 동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師弟人生을 보내면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된 10년간의 조교·강사 浪人生活때 교수와 싸우면 남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며 ‘참고 인내하라’고 조언하시며 진정시키셨습니다.

또한 “Hoping tomorrow better than today[일일신(日一新)]” 하라는 생활신조를 갖으시고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진취적으로 개조시키신 교육자로서 약업계 안팎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오신 큰 어른이십니다.

1996년경 한약분쟁 때 전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으로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본인은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은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는 수첩을 내놓으라 하시더니 ‘기불가실 시불재래(機不可失 時不再來)’ 하라는 글귀를 써주시며 중앙대학교 대표로서 대한약학회 차기 회장으로 출마하라고 권고하셨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고는 선생님께서 한덕룡 은사님과 함께 전국 약학대학을 순회하시면서 제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주심으로 사립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본인이 대한약학회 회장에 당선되어 학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맺은 師弟와 學問과 友情 그리고 親交를 나누었던 교수나 학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전 선생께서는 제가 퇴직시 발간했던 자서전 ‘약학인생 반세기’에 기고하신 축사에 “그 옛날 중국의 춘추시대 齊나라의 영원한 친구인 두 충신 管鮑와 鮑叔의 성을 따서 두 사람의 우정을 담아 전해오는 管鮑之交 이상의 그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는 글을 저에게 남기셨으니 제자인 저로서는 가문의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一田 金一赫 교수님, 은사님이시여!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약계인들의 존경과 가족친지들의 사랑을 모두 받으시고 큰 고통 없이 따뜻한 겨울철에 소천 하시었으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하고 포근함을 넘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생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큰 별이 되어 저승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생님, 이제 복잡한 세상과 동통에서 해방되어 편히 영면 하소서...

불초제자 김 창 중

회장단회비		600,000원
20회	김현태, 정찬현, 권오규, 김대승, 김홍진, 문주기 박기배, 유영내,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최석중	28회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전금용, 구영삼, 정원태, 최용철
21회	김수배, 김중효, 최병철, 박전희, 홍종오	29회 손병로, 유종운, 강대용
22회	이준상, 강희윤, 유대식, 최광훈	30회 김광식, 백영주, 윤미숙, 최병원
23회	박종화, 임준석, 정덕기	32회 정선중, 조양연
24회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33회 조준상
25회	김광호, 김희섭, 이내흥, 이광인, 최두주	34회 한일권, 김보원, 신수민
26회	권송상, 김안식,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35회 도건호, 이경선, 임종식
27회	곽나운, 김정호, 박영달, 한봉길	39회 윤재경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17회 양희익, 이동우, 이완철, 김성지, 장재인, 선우영환
3회	손석우	18회 박광숙, 강응모, 임태영
5회	김영배	20회 이극선, 조진환
6회	유상열, 박정배, 안병환, 안인혁	21회 백운경, 이상준, 한성희
7회	정재일, 김정부, 서명규, 이기안	22회 오황영, 이명옥, 손의동
8회	박번일, 조의환, 임삼묵, 한석원	23회 박희용
9회	권혁구, 문영동, 이근배, 김영빈	24회 양성철, 장규옥
10회	유정사, 이홍수, 박호일	26회 최태영
11회	황공용, 고승하, 김창중, 김미자	27회 최충식, 이원일, 윤영한, 박수길
12회	심재웅, 이성우, 조택상, 노덕재	29회 김은진, 김인혜
13회	구연홍, 윤해선, 최창엽, 문재빈, 이종각, 박동규	30회 김혜수
14회	김윤국, 구종모, 김동원, 김종렬	32회 안광열
15회	조찬휘, 임영식, 김용의, 박석동	36회 우경아
16회	백승복, 이상규	

일반회비		30,000원	
4회	홍범표	28회	조효금, 견주남, 조승찬, 양창국, 이석원, 한성호 문현미, 유정수
6회	신의명	29회	장우성, 심미선, 민희정, 한규인, 이성문, 박요섭 최현순, 김영자, 이강현, 김현태, 박춘화
7회	유상근, 김홍배, 한경석	30회	장부자, 고은숙, 김선겸, 이경숙, 조덕희, 홍염미 최종후, 강승억, 원주현, 정문경, 손은실, 김용규 조순연
8회	이태하, 강윤규, 김희선, 김형이, 조수현	31회	이정희, 유인숙, 오대근, 구상미, 류문숙, 김보식 현영숙, 변동성, 오세정, 김영관
9회	정상모, 김청용	32회	채영주, 김현경, 김형기, 나희진, 정현삼, 유귀숙 김익수, 김정중, 이경준, 박재홍, 유완진
10회	박광일, 김명민, 이원일	33회	박진범, 이종택, 박해석, 이성수
11회	안홍신, 이석태, 윤 원, 구자역, 최민재, 양계창 남복석, 김동실, 조명숙, 강일성, 이철규, 홍금자	34회	김상희, 김효진, 진용균, 임혜숙, 김진아, 박종우 김현숙, 김영화
12회	이종화, 오형철, 김대건, 박홍식, 이만오, 문혜성 장광웅, 이정희, 김용환, 김귀성, 김일영, 홍정덕 이종화	35회	정문선, 김 진, 김성훈, 강준구, 예현주, 김주희 정민식, 오창현, 박민녕
13회	김창식, 손찬규, 안상희, 조성도, 이우식, 서성범 김희겸, 신석준	36회	박화신, 김정란, 김범수, 정현희, 이태경
14회	김명수, 홍성철, 김영일, 현해경, 류효성, 이용성 이강련, 이희영, 김갑동	37회	한덕희, 조구옥(영돈), 김찬배, 박상훈
15회	송현숙, 이명숙, 남석우, 박태호, 김형수, 이덕노 진총렬, 김태영	38회	오향숙, 최은영, 성치순, 황성환, 조인호, 이명희 이주희
16회	윤영위, 박창호, 신진숙, 박종애, 신규연, 박상환 조연심, 김광길	39회	신순옥, 김성용, 한은경, 조권현
17회	원종천, 신승백, 정대진, 조기남	40회	장미라, 이창모
18회	여운숙, 육득윤, 홍현식, 이복숙, 양만기	41회	박영진, 신유미, 장산옥, 김정민, 최현진, 김소연 이은영
19회	남윤수, 김인기, 장명섭, 채희태, 윤영문, 박운홍 김승호, 조안제	42회	이창경, 민명기, 문성원, 임태규
20회	안연준, 최용철, 송열호, 서종원, 김영식, 남덕자 윤춘수, 구장림, 최운환, 정영수, 김평자, 방금숙	43회	장선영, 이경은
21회	한찬수, 김성만, 안병현, 이진경, 한태식, 노재하 박제천, 송진용	44회	정의찬
22회	김인선, 박동우	45회	고기현, 정모광, 장민수, 김지하, 신미순
23회	임창영, 윤명숙, 나용태, 한병철, 박찬중, 권석형 이원길, 이계석	46회	김지연
24회	홍용기, 오세홍, 정상수, 김정무, 문숙희, 이형수	47회	김영준
25회	조경래, 이승정, 김형욱, 손현우, 이동규, 이영제 김선열, 이수영, 김태원, 오근택, 권세형, 이광인 장명렬, 김완기	48회	정혜림
26회	이승현, 손영상, 이종양, 이순아, 최옥숙, 유명한 반수호, 양승훈, 박병섭, 김재역, 김영후, 이재권 윤광중, 김정수B	50회	우종식
27회	염승호, 전명수, 최호진, 최경희, 채규미, 강종신 김창식	51회	장진, 정주철, 이준희, 송호선
		53회	최대림
		54회	송지은, 이윤정
		56회	이익희, 변혜영, 박광준
		57회	이준희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100주년기념관 건립기금 기부자

최종목	3회	500,000,000
임성기	6회	2,000,000,000
황순오	12회	9,000,000
엄재우	29회	1,420,000
강규태	43회	1,000,000

100주년 기념관 동판제작 기부자

김현태(20회)	1,000,000	이상일(20회)	3,000,000	정민식(35회)	1,000,000
김기홍(1회)	1,000,000	김수배(21회)	1,000,000	김진(35회)	1,000,000
최종범(7회)	1,100,000	박전희(21회)	1,000,000	강규태(43회)	1,000,000
조의환(8회)	1,000,000	백운경(21회)	1,000,000	이광섭(24회 생약반 일동)	1,000,000
유정사(10회)	1,000,000	최광훈(22회)	1,000,000	유영한(26회 동기회 일동)	1,000,000
정수길(10회)	1,000,000	김광호(25회)	1,000,000	이해룡(28회 동기회 일동)	1,000,000
박호일(10회)	1,000,000	김정수A(26회)	1,000,000	이훈복(동작분회 일동)	1,000,000
황순오(12회)	1,000,000	곽나윤(27회)	1,000,000	김유곤(부천분회 일동)	1,000,000
이상우(12회)	1,000,000	김정호(27회)	1,000,000	손동헌 명예교수	1,000,000
이관하(12회)	1,000,000	이해룡(28회)	1,000,000	한상범 교수	1,000,000
윤해선(13회)	1,000,000	김유곤(28회)	1,000,000	강원구 교수	1,000,000
윤대봉(14회)	1,000,000	구영삼(28회)	3,000,000	민혜영 교수	1,000,000
조찬휘(15회)	1,000,000	이혁빈(28회)	1,000,000	손의동 교수	1,000,000
허사길(16회)	1,000,000	조한군(28회)	1,000,000	황완균 교수	1,000,000
장재인(17회)	1,000,000	이경우(29회)	1,000,000	황광우 교수	1,000,000
남상규(19회)	1,000,000	김선진(30회)	1,000,000	오경택 교수	1,000,000
이극선(20회)	1,000,000	이경우(32회)	1,000,000	민경훈 교수	1,000,000
정찬현(20회)	1,000,000	한일권(34회)	1,000,000		

최종목(3회) 고문 중앙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

1월 5일 (목) 오전 11시 30분부터 201관(본관) 3층 총장실에서 최종목(3회) 고문의 중앙대학교 발전기금 5억원의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목 동문 부부를 맞이하여 김창수 총장, 장재욱 대외협력처장, 유성재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2016-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제약과학	박혜진
2	본동문회	2,000,000	위생과학	장지민
3	본동문회	1,500,000	약학부	편도현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진영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강영우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최주현
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희주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영담
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남기현
1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민지
11	본동문회	889,000	약학	김예희
12	본동문회	889,000	제약학	홍효빈
13	본동문회	889,000	제약학	김용민
14	본동문회	839,000	약학부	차상민
15	본동문회	650,000	약학	서유미
16	본동문회	650,000	제약학	홍록기
17	본동문회	650,000	제약학	정민경
18	본동문회(청호)	1,500,000	제약학	이민아
19	본동문회(김명섭)	1,500,000	약학부	안진수
20	여동문회	1,000,000	약학	변수현
21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유나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2	천안동문회	1,000,000	약학부	김준하
23	강서동문회	1,000,000	제약학	권지원
24	강서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명중
25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인정렬
26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27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박현찬
28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구판서
29	28회동기회	1,000,000	약학부	김은경
30	나사모동문회	1,500,000	제약학	이지훈
3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대용
32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이유나
33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홍영기
34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배유정
35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약학	강현식
36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약학	박상준
37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신윤정
38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진정호
39	칼라무스동문회	1,000,000	제약학	남현정
40	칼라무스동문회	500,000	약학	배현호
41	칼라무스동문회	500,000	제약학	윤승현
합 계		41,956,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건강관리 공단에서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무료로 혈압기를 임대하여 받았다. 공인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모바일앱을 설정하여 수시로 자가측정하여 스마트폰에 입력한다.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만 환자노릇 하는게 정말 만만치 않다.
 늙는 것도... 세련 되어야

박희용(23회)
편집위원

1979년 대학원 입학의 기점으로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육조교를 시작으로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시간강사, 2004년 객원교수,
 2006년 겸임교수에 이어
 2016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전공전담교수에 임용되었다.
 먼 길 돌아서 다시 흑석동, 작은 인연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는다.
 동문회보 편집위원에서 도망갈 희망은 이제 어디에도 없다!

이해룡(28회)
편집위원

나라 안팎이 몹시 혼란스럽지만,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열심히 뛰어왔다고는 하나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언제나 철이 들어 선배님들의 연륜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하는 약속, 올해도 부지런히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고혈압 으로부터..

[웃다] laugh



ARB 와 CCB 의 강력한 혈압조절효과

하이퍼스타정

Hyper Star Tab.

Telmisartan 40mg + Amlodipine 5mg
Telmisartan 80mg + Amlodipine 5mg
Telmisartan 40mg + Amlodipine 10mg

- 단독 요법에 비해 혈압강하효과가 우수합니다.
- 단독 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습니다.



한국휴텍스제약(주)



28 가지 성분을
하루 한알

나인나인정

무수인산소칼슘(KP) 421.54mg(칼슘으로서 124.775mg, 총 인으로서 96mg) / 시아노코발라민(1000배산(KP) 6mg(시아노코발라민으로서 6μg) / 엽화크롬수화물(USP) 0.102mg(크롬으로서 20μg) / 요오드화칼륨(USP) 0.098mg(요오드으로서 75μg) / 폴리브덴산나트륨(EF) 0.051mg(폴리브덴산으로서 20μg) / 용산(KP) 0.4mg / 퀴타놀아비테이브(EF) 1.8mg(비타민A로서 900IU) / 피토나디온(8배(별규) 1.95mg(비타민K로서 97.5μg) / 리보플라빈(KP) 2.4mg / 베타카로틴(20%과립(별규) 3.6mg(베타카로틴으로서 0.72mg) / 티아민질산염(KP) 2.775mg / 피리독신염산염(KP) 4.02mg / 비오틴(별규) 0.96mg(비오틴으로서 60μg) / 글루탐산(과립(별규) 1.5mg(비타민D로서 750IU) / 황산화이규리수화물(USP) 1.76mg(구리로서 0.45mg) / 황산화이규리(USP) 7.69mg(망간으로서 2.5mg) / 판토텐산칼슘(KP) 8.813mg(판토텐산으로서 9mg, 칼슘으로서 0.826mg) / 산화아연(KP) 8.333mg(아연으로서 7.5mg) / 니코틴아미드(KP) 27mg / 토코페롤아세테이트 2배산(KP) 60mg(비타민E로서 30IU) / 셀레늄(과립(별규) 23.5mg(셀레늄으로서 23.5μg) / 루마르산질(KP) 54.16mg(철로서 18mg) / 아스코르브산(87%과립(별규) 61.85mg(비타민C로서 60mg) / 산화하이드로퀴논(KP) 82.92mg(마그네슘으로서 50mg) / 황산칼륨(KP) 88.15mg(칼륨으로서 40mg) / 우르소데옥시콜산(KP) 10mg / 글리시릴라루코신염(USP) 10mg / 오로트산수화물(KP) 10mg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